

# 密陽 景德壇과 萬雲齋의 건축적 특성

- 근대한옥의 성격을 중심으로 -

李鎬洙

(密陽大學校 建築工學科 副教授)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76년 인천 개항이후 서양과 일본 문물의 유입은 우리 건축계에 적잖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19세기말 이후 洋屋 및 日式住居가 開港場과 大都市를 중심으로 건축되면서, 住文化는 물론 전통한옥의 외관과 재료, 구조 등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1910년 이후 日帝 強占期 동안 日式的 住居를 비롯 관청, 상가들이 전국적으로 건축되면서<sup>1)</sup>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日式住居는 그 구조가 木造인데다, 당시의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를 가진 상류층이나 일본에 유학한 자나 관리들을 중심으로 전통 한옥에 日式 住居의 장점을 절충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도를 통해 전통한옥의 공간구성과 건축형식을 따르면서 거기에 日式住居 및 洋式住居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수용·절충하는 한옥이 건축되었다. 특히 이 시기 건축할 수 있는 잉여 경제력을 가진 부유한 계층은 신축 또는 증수하는 자신들의 주거에 새로운 형식의 수납공간, 부엌공간, 설비방식, 재료 및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거

나 더 나아가 외국 건축인력을 건축공사에 동원하는 등의 다양한 실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를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밀양의 상류층 근대한옥<sup>2)</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인 景德壇과 萬雲齋는 지방 농촌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에 위치한 1920년대 중·후반에 건축된 근대한옥이다. 무엇보다 전통한옥에 日式 및 洋式的 주거문화를 선택적으로 채용한 좋은 예로써 일제 강점기하 지방 근대한옥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무엇보다 이 건물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당시 지방 상류층이 추구했던 주거 공간과 주생활 내용을 고찰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한옥인 景德壇과 萬雲齋<sup>3)</sup>를 대상으로 20세기초 밀양지역 근대한옥의 공간구성과 입면, 구조, 재료, 설비면의 근대적 성격을 비롯한 건축적 제특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일제 강점기하 지방 근대한옥의 건축경향과 세부형식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는 일제 강점기에 지방 상류층이 외래 주문화를

1) 1921년 경성에 건설된 일식주택은 총 1495동 중 875동으로 전체의 60%를 점했으며, 1933년에는 일본인 주택이 경성 전체 주택의 33.6%를 점하였다.(안성호·김순일, "1930년대 한국 근대주택에 나타난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영향", 『건축역사연구』 6권 2호, 1997. 6. P.23)

2) 여기서 근대한옥이라 함은 1876년 개항이후 1945년 일제 강점기까지의 기간에 건축된 한옥을 말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1930년대까지를 '초기근대', 1960년대를 본격적인 근대로 세분하기도 한다.(이강민, "초기근대 전남지역 부농주거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1. 2, pp.7~9.)

3) 1998년 11월 13일 경남문화재자료 272호로 지정되었으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정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였다.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 또는 변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외부의 문화적 충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다.

연구는 주로 密城朴氏의 始祖인 密城大君의 壇所인 景德壇의 祭壇과 外三門 및 齋宿所인 萬雲齋<sup>4)</sup>의 迪敬閣(舊 안채)과 萬雲齋(舊 사랑채), 仰景門(舊 대문채)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그림 1) 조사는 현장 실측 및 사진촬영, 면접조사를 병행했으며, 1998년 10월 5일의 1차 조사이후 7차례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密城大君派인 密城 朴氏가 단연 주류를 이루어 전체 박씨 인구의 70~80%를 점하고 있다. 현재 경남 밀양시에 거주하는 밀성박씨는 2,918戶로 他姓에 비해 압도적이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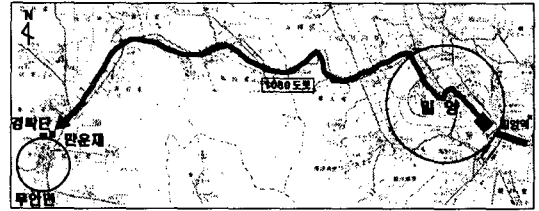


그림 1 景德壇과 萬雲齋의 위치 안내도

## 2. 景德壇과 萬雲齋의 건축배경과 연혁

### 2-1 密城朴氏의 世系

景德壇과 萬雲齋는 密城朴氏의 始祖인 密城大君의 祭壇 및 齋宿所이다. 건립배경에 대한 고찰을 위해 먼저 密城 朴氏의 世系를 살펴보기로 한다. 金氏·李氏와 함께 3대 姓을 이루고 있는 朴氏의 世系는 신라<sup>5)</sup>의 초대 왕 赫居世의 증손이 되는 婆娑王과 逸聖王의 代에서 크게 갈라졌다. 婆娑王系는 뒤에 寧海·沔川·江陵 등으로 分貫되었으며, 이 밖에 比安·牛峰·尼山·海州 등도 婆娑王의 후손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逸聖王系는 그의 25대손인 景明王·景哀王에서 다시 갈렸다. 경명왕계는 그의 아홉 아들로 각기 분파 되었는데 密城大君 '彦忱'派·高陽大君 '彦成'派·速威大君 '彦信'派·竹城大君 '彦立'派·沙伐大君 '彦昌'派·完山大君 '彦華'派·江南大君 '彦智'派·月城大君 '彦儀'派의 8대君派와 국상공 '교순'파가 그것이다. 경애왕계는 그의 후사인 계림대군 '수현'파가 있다. 8대군파는 다시 40여 본으로 分貫된다<sup>6)</sup>.

### 2-2 景德壇의 건립배경과 연혁

景德壇은 1927년 건립한 密城朴氏의 祭壇으로, 경내에 墓가 전하지 않는 始祖 密城大君<sup>8)</sup> 및 朴郁<sup>9)</sup>, 朴瀾<sup>10)</sup>의 제향을 위한 祭壇을 두고 외곽에 의삼문과 담장을 시설했다. 경덕단은 밀성박씨 문중의 협조를 받아 1927년(丁卯) 校理 朴海澈이 주관하여 건립했다.<sup>11)</sup> 그는 자신이 많은 捐金을 냈을 뿐만 아니라 밀성박씨의 성금을 받아 밀양시 武安 鳳翼山 아래에 건술한 密城大君, 朴郁, 朴瀾 세 사람을 추모하는 祭壇을 세웠다.(A1)

A1(중략)遂就武安鳳翼山下設壇豎碑以妥大君之靈而高麗三韓壁控都大將軍 遼東督捕使二公分昭穆而配焉 嚴嚴翼備極宏麗名之日景德壇 又就其東置屋上下上以爲執事齋門垣廚庫庖湑之所 皆具歲以仲秋上旬...<sup>12)</sup>

경덕단에 부속된 재실(齋宿所)인 만운재는 본래 개인 주택으로, 밀성박씨 정국군과 문중에서 매입하여 재실로 사용해오고 있다. 사료 A1의 "경덕단 東便에 執事齋, 門, 垣, 廚庫, 부역을 구비한 것은 1927년 仲秋(음력 8월) 상순경이었다"는 내용은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密城大君 祭壇陰記(A2)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4) 萬雲齋 내에는 유경각과 만운재가 주건물이다. 만운재란 명칭은 전체 齋室의 명칭이자 주택으로 건축 당시의 사랑채를 의미한다. 현재 재실로 사용하면서 당초 안채에 유경각, 사랑채에 만운재라 편액하였으므로 이 명칭을 쓰되, 당초의 건물 기능을 중시하여 유경각을 舊 안채, 만운재를 舊 사랑채로 병기했다.

5) 신라의 왕실은 56대가 박(朴)·석(昔)·김(金)3성에 의해 교체 반복되었는데 그 중 박씨 왕은 시조왕 혁거세를 비롯, 2대 남해, 3대 유리, 5대 파사, 6대 지마, 7대 일성, 8대 아달라,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55대 경애왕 등 모두 열 사람이다.

6) 밀양·반남·고령·함양·죽산·충주·순천·무안 朴氏를 세칭 '八朴'이라 부른다. 이들 여덟 본이 비교적 많은 인물을 배출하여 사실상 박씨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7) 密陽誌編纂委員會編, 「密陽誌」, 밀양문화원, 1987. 12 p.643.

8) 신라 55대 경명왕(917~924)의 8대군 중 장자로서 王統을 不嗣하고 密城에 受封된 密城大君 朴彦忱을 말함

9) 밀양인, 신라말기의 호족 전설에 의하면 고려 태조의 건국에 건국에 공을 세워 三重大臣 三韓壁控都大將軍에 봉해졌다.

10) 高麗開國勳臣 遼東督捕使

11) 朴志浩편, 「萬雲齋誌」(1988년 9월, 제책 문성사) pp.9~10.

12) 朴志浩편, 「萬雲齋誌」(1988년 9월, 제책 문성사, pp.14~15)의 "迪敬閣記"에서 발췌.

경덕단 건립 배경을 살펴보자. 사료 A.2에 “밀성대군은 경명왕의 長子로, 密城(현 밀양시)은 그의 食邑(采邑)이었다. 諱는 彦沈으로 세대가 오래되어 능묘가 전하지 않는 바 食邑 密城(현 密陽) 武安에 壇을 만들었다”고 했다. 밀성대군의 墓가 전하지 않음으로 그의 食邑이었던 密陽 武安에 祭壇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A.2 景德壇 新羅景明王子密城大君祭壇陰記 大君羅王之長子也 密城其采邑也 諱彦沈世代之久遠 陵墓無傳 所以就其采邑之武安里而壇也(중략)景明王有八公子 長即大君(중략)大君之後 有韓壁控都大將軍諱郁 遼東督捕使瀾兩世示功德著 配食壇之東西<sup>13)</sup> (하략)

그러나 1927년 이전에도 밀성대군을 향사할 제단을 건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다. 사료 A3은 “仁祖 甲戌年(1634)에 밀성박씨의 外孫인 李惟達이 밀양부사로 내려와서 本郡의 菊潭, 壽春 및 鄉士林이 始祖廟(密城大君廟)를 세울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영남루 위에서 제사를 올린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후에도 사당 건립 장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 20세기초에 들어와 흥문관 侍讀 海徹이 功德이 있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여, 乙丑年(1925) 仲冬(음력 11월)에 경덕단 공사를 시작하여 丁卯年(1927) 季冬(음력 12월)에 준공하였다(A3)”는 것이다.

이것으로 17세기초 밀양부사 李惟達과 밀양 士林을 중심으로 밀성대군의 사당 건립을 논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박해철의 주도로 1925년 11월에 제단인 경덕단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1927년 12월 준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덕단 외삼문의 종도리 받침장여 밑면의 “新羅始祖紀元後一九八四年丁卯四月二十六日庚申辰時豎柱巳時上樑”이란 墨書銘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A.3(중략)仁廟甲戌 本府李公惟達以大君外裔 同本孫及鄉士林 設祭于嶺南樓 自是立祀處奉之論 世世踪發而未克有成 迺弘文館侍讀海徹首倡于宗 以爲功德之祖不可不祭 父祖之論不可不遠 始事於乙丑仲冬 竣工於丁卯季冬 壇既成 謹上壇 號曰景德銘曰<sup>14)</sup>

A.4(중략)在甲子密陽宗人之主催 通告八域大會宗族 千嶺南樓建議設壇祀之事 是年五月二日也 於是攻石勒碑四閱月而功畢 於千盛哉<sup>15)</sup>

한편 박해철의 주도로 밀양 무안에 경덕단을 조성하기 前에 친일파 朴春琴<sup>16)</sup>을 중심으로 한 밀성박씨의 다른 세력은 1924년(甲子)에 독자적으로 밀성대군 祭壇을 영남루 경내에 건립<sup>17)</sup>하였다.(사진.1과 A.4 참조) 이 密城大君壇의 조형은 정방형 단면의 石碑와 臺石과 옥개석의 형태 및 주변 석물의 형식 등이 철저하게 日式을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전술한 무안의 경덕단은 전통적인 규범에 근대적 성격을 가미하여 건립되었다.



사진1 영남루 경내 밀성대군단

이러한 조형상의 차이는 박해철이 儒林을 대표하여 전통적인 규범을 존중한데 반해 친일파 박춘금은 일본식 조형을 따라 조성했기 때문이다.

### 2-3 萬雲齋의 연혁

萬雲齋는 경덕단 東便에 인접한 부속 齋宿所이다. 이 건물은 당초 밀양 무안의 富豪<sup>18)</sup> 子弟 姜其焄<sup>19)</sup>의 살림집으로, 당시의 행정구역상 밀양군 하서면 943번지에 지은 것이다. 건축주 강기훈은 일본 明治大學을 나온 인텔리로 韓中日 三國의 건축

14) “新羅景明王子密城大君祭壇陰記”에서 발췌(朴志浩편, 「萬雲齋誌」(제책 문성사, 1988. 9, pp.19~24)

15) 「密城朴氏 嘯阜公派世譜」, 卷上, p.30

16) 1891년 밀양출생. 폭력을 밀천으로 일제권력에 아부 협력한 극렬 친일파로, 1932, 1940년 일본 중의원 의원을 지냄.

17) 2개소에 密城大君 祭壇(壇所)을 건립하게 된 것은 밀성대군의 諱 彦沈을 비석에 표기하자는 박해철측의 주장과 諱는 불명확하니까 밀성대군이라고만 표기하자는 박춘금측의 주장이 대립하다 결국 두 세력으로 분파되어 각기 독자적으로 제단을 건립(박지인, 77세, 前萬雲齋 有司, 밀양시 무안면 거주)

18) 농업생산량이 700석/년정도 였다고 함.(박지인, 77세, 전 만운재 유사, 밀양시 무안면 거주)

19) 현 만운재 부지는 강인찬씨가 소유하던 대지였으나, 1918년(大正 7) 강기훈씨가 이 땅을 사서 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13) 朴志浩편, 「萬雲齋誌」(1988. 9, 제책 문성사) pp.19~21

기술자들을 공사에 동원했다고 전해온다. 한국 목수는 목조건축 전반을, 일본 목수는 창호 및 쪽마루 공사, 중국인은 유경각 부엌의 배연설비 및 조적공사를 맡아 일했다고 전한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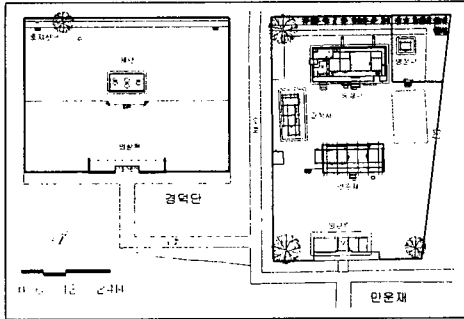


그림 2 景德壇과 萬雲齋 전체 배치도

건축주 강기훈은 무리한 주택공사로 인한 자금난으로 이 집을 매도하게 되고, 그후 몇 사람을 거쳐 1931년 5월 密城朴氏 정국근과 문중에서 이 집을 매입하여<sup>21)</sup> 경덕단 부속 재실(만운재)로 사용해 왔다. 이로써 壇所(祭壇)와 부속재실로 구성되는 '壇 건축형식'을 갖추게 되었다.(그림 2)

표 1. 舊登記簿上의 건물명과 구조,면적 (1924년 11월 1일 등기)

| 區分       | 構造      | 建坪     | 備考   |
|----------|---------|--------|------|
| 本家       | 목조 단층瓦家 | 1동 48평 |      |
| 住家.1     | 목조 단층瓦家 | 1동 40평 | 부속건물 |
| 住家.2     | 목조 단층瓦家 | 1동 24평 | 부속건물 |
| 헛간(物置).1 | 목조 단층瓦家 | 1동 24평 | 부속건물 |
| 헛간(物置).2 | 목조 단층瓦家 | 1동 18평 | 부속건물 |
| 門        | 목조 단층瓦家 | 1동 18평 | 부속건물 |
| 祭祝所      | 목조 단층瓦家 | 1동 4평  | 부속건물 |
| 便所       | 목조 단층瓦家 | 1동 4평  | 부속건물 |
| 倉庫       | 목조 단층瓦家 | 1동 24평 | 부속건물 |

만운재 건물들의 건축연대는 (표 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1)의 만운재 舊登記簿 등본을 살펴볼 때 주택으로 건축 당시 本家 1동, 住家 2동 등 총 9동의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들이 동시에 건축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1924년에 등기한 것으로 보아 본가와 주건물이 늦어도 1924년 11월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입 당시 총 9동의 건물 중 지금은 5棟만 남아 있다. 매입후 사랑채에 해당 하는 만운재 좌우에

있던 건물 등 4棟은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운재(사랑채) 동서에 空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 3. 배치 및 평면상의 특성

#### 3-1 경덕단과 만운재의 입지 특성

경덕단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854번지, 만운재는 862, 943번지에 위치한다. 밀양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8.7km 떨어진 곳으로(그림.1, 2 참조), 대지 남쪽에 무안면 소재지가 펼쳐져 있다. 풍수적 형국은 북쪽의 해발 375.4m의 鳳翼山을 主山으로, 主山에서 뻗어내린 支脈이 左靑龍 右白虎가 대지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경덕단과 만운재는 이러한 형국의 중앙부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지의 지반고는 해발 약 70m 정도로 주변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남쪽으로 전망하기 용이하다. 대지의 남쪽으로 100여m 떨어진 곳에 송운대사 사명당의 사적을 기록한 表忠碑<sup>22)</sup>가 있다.

#### 3-2 경덕단과 만운재의 배치 및 외부공간

##### (1) 景德壇의 배치 및 외부공간

경덕단은 밀성대군의 제단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朴海哲(?~1934)의 주도로 1925년 11월부터 1927년 12월까지 2년 1개월의 공사 끝에 준공되었다. 넓은 대지(1,617㎡)의 정면 중앙부에 3기의 비석과 床石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남쪽에 境內 출입을 위한 외삼문(9×1칸) 1棟을 건축했다. 그 주위에는 방형의 토담을 쌓아 영역을 한정했으며, 외삼문(사진 2)은 경덕단 내 유일한 한식 목조건물이다.

경내로 진입은 外三門 중앙에 있는 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享祀 때 祭官이 도열하여 祭儀를 거행하는 넓은 의례마당이 있다. 의례마당의 前方 중앙부에 화강석 장대석으로 조성한 祭壇(사진 3)이 있다. 제단 중앙에는 密城大君 朴彦忱의 石碑<sup>23)</sup>를 두고, 그 東西에 각각 三重大匡 三韓壁控都大將軍 朴郁, 高麗開國勳臣 遼東督捕使 朴瀾의 石碑를 배치했다. 祭壇 뒤로는 높이 1.81m의 벽돌 벽을 'ㄷ자형'으로 쌓아 祭儀공간을 일정하게 한정함과 아울러 시각적 초점이 되도록

20) 면담, 박지인, 77세 前 萬雲齋 有司, 밀양시 무안면 거주  
 21) 1931년 朴在文(청도군 이서면 수야리동 196)의 13명의 共有로 소유권을 이전함

22) 경남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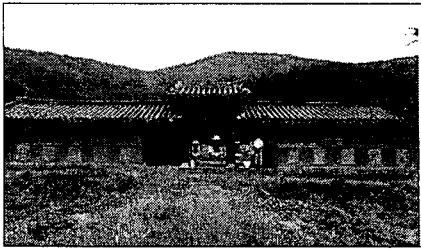


사진 2.. 경덕단 외삼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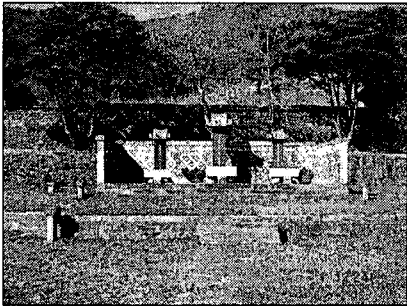


사진3. 경덕단 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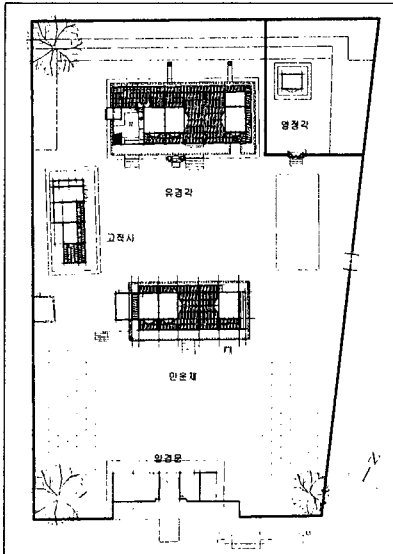


그림 3. 萬雲齋 配置圖

했다.(사진 3) 이러한 '가벽'은 이전 시기의 祭壇에서 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새로운 건축적 시도라 하겠다

(2) 萬雲齋의 배치 및 외부공간

만운재는 景德壇의 齋宿所로 사용되나, 당초에는 주택으로 건축되었다. (그림 2)와 같이 小路를 사이에 두고 경덕단과 서로 인접해 있어 재실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당초의 배치형식은 재실의 기능과 규범에는 적합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밀성박씨 정국군과 문중에서는 강기훈의 주택 매입 직후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는 원형대로 사용하되, 庫直舍와 景肖齋, 影幀閣은 재실건축의 기능과 규범에 맞게 개축 또는 신축했다. 현 만운재내 주요 건물의 기능을 살펴보면 迺敬閣(舊 안채)은 주로 景德壇의 享祀때 典祀廳으로, 萬雲齋(舊 사랑채)는 享祀를 앞두고 멀리서 찾아온 祭官들의 齋宿所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6棟의 건물중 경초재가 2000년 11월 태풍 피해를 입어 철거되고 복구되지 못함으로서 현재 경내에는 5동의 건물만 남아 있다.

현 만운재의 건물배치는 바깥마당을 중심으로 仰景門, 만운재가 전후로 배치되고, 그 뒤에 안마당을 중심으로 迺敬閣과 만운재, 그 동서편의 景肖齋와 庫直舍로 '튼ㄷ자형'을 이룬다. 작년 말 안마당 동편의 경초재가 철거됨에 따라 '튼ㄷ자형'의 배치를 보인다. 이는 당시 안채와 사랑채를 별도로 건립하는 밀양을 비롯한 남부지방 상류주택의 일반적인 분산형의 배치법(그림 424)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진입시 사랑채 정면의 대문을 통해 출입하게 함으로써 남녀동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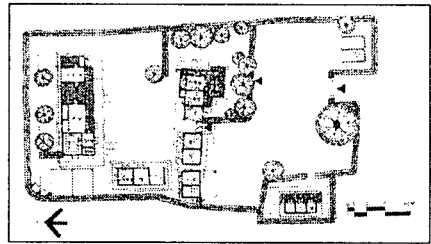


그림 4. 밀양 단장면 허용씨 가옥(1900년)

3-3 경덕단과 만운재의 평면

(1) 경덕단 외삼문의 평면

祭壇 남쪽에 배치된 外三門은 정면 9칸, 측면 1칸 크기의 맞배집이다. 전체 9칸 중 지붕은 소슬삼문형식이며, 소슬삼문의 어칸 측면 중앙 기둥열에 맞춰 두 짝의 洋板門을 달았다.

외삼문의 정면의 긴 벽은 벽돌을 치장쌓기하여

23) 밀성대군 石碑의 碑文은 後孫 時龍이 짓고, 海徹 謹銘하고, 通政 農工商部局長 吳世昌이 篆했다.

24) 최 일,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1988, p.110

폐쇄하고, 안쪽은 의례공간인 마당과 제단을 향해 벽체를 개방하여 祭儀時의 준비공간으로 獻官과 執事者를 비롯한 參祭人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외삼문은 三門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외에 祭享을 준비하는 典祀廳 및 회랑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내부공간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2) 萬雲齋내 건물의 평면

1) 迺敬閣(舊 안채)

강기훈이 1924년에 건축한 주택의 안채로, 다듬은 돌로 정연하게 쌓은 네벌대의 기단 위에 지은 홀처마 팔작집이다.(사진 4) 지금은 만운재의 주건물로 정면 6.5칸·측면 2칸 규모의 전후퇴집이다.

1칸의 간살은 정면이 2,450mm, 측면이 2,730mm로, 정면보다 측면의 간살이 넓다. 건물은 평면은 좌측부터 부엌 1.5칸, 온돌방 2칸, 마루 2칸, 온돌방 1칸을 차례로 연결한 형식이다. 건물의 前面과 背面 및 右側面을 따라 길게 놓인 툇마루와 쪽마루는 日式住宅의 明治式 複道를 방불한다.(그림 5)

특히 부엌과 부엌 배면의 찬마루 그리고 큰방과의 연결이 기능적이다. 부엌과 배면의 찬마루 사이에는 세 짝의 미서기 판문이 있으며, 이 문을 통해 부엌과 연결된다. 찬마루를 통해 안방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온돌방 뒤쪽에는 공히 의류와 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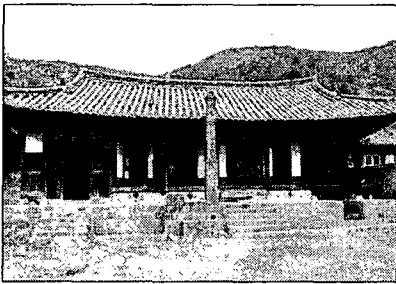


사진 4.유경각(舊 안채)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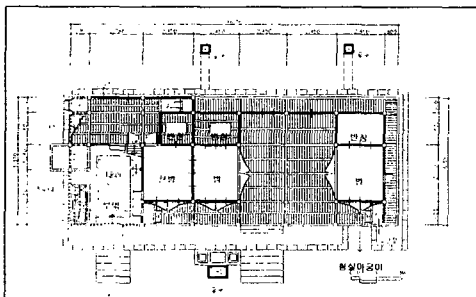


그림 5.유경각(舊 안채) 평면도

등을 수장하는 반칸(1.2m) 깊이의 반침을 시설하고 장지문을 달았다. 큰방 가운데는 네 짝의 장지문을 달아 室의 통합과 구분이 용이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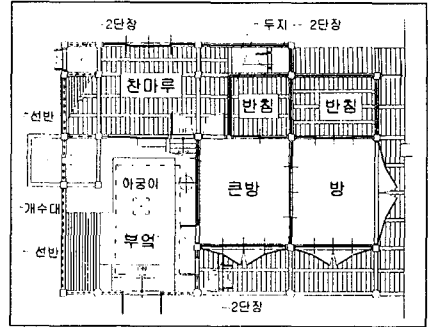


그림 6.유경각(舊 안채) 부엌,큰방 부분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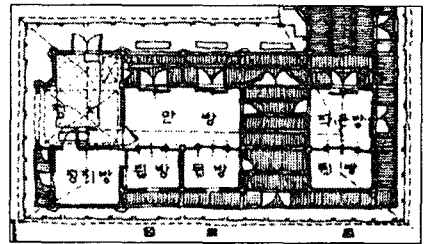


그림 7. 경남 거창 신도성씨가옥 안채 부분평면도

유경각의 특징인 부엌 내부시설 및 배면의 찬마루의 공간구성(그림 6)은 부엌과 서비스공간인 찬마루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으로, 전통적인 한옥의 부엌과는 공간구성상 차이를 보인다. (그림 7)은 1926년경 건립된 경남 거창 신도성씨 가옥으로, 안채 부엌 뒤편에 정지방이 놓여 있다. 밀양 단장면의 허용씨 가옥(그림 4)도 이러한 사례중의 하나이다. 이것으로 20세기초 남부지방 상류주택의 부엌 앞 또는 뒤에 가사 작업 등을 위한 정지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경각의 경우는 전술한 정지방 위치에 바닥에 마루를 깔 찬마루를 두고 주위에 다양한 수장시설을 둔 경우이다. 찬마루는 이미 1900년대 건축된 서울 성북동 이태현 가옥에서 나타난다.<sup>25)</sup> 유경각의 찬마루는 정지방 형식의 공간구성에 1920년대 들어와 주택

25)자료: 최 일,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1988, p105.

26) 연세대 주생활학과 대학원 동창회, 「한국주택자료집」, 1988, p.13, 23.

및 생활개선 운동이 진행되면서 소개된 본격 찬마루(그림 8)를 지방 한옥에서 수용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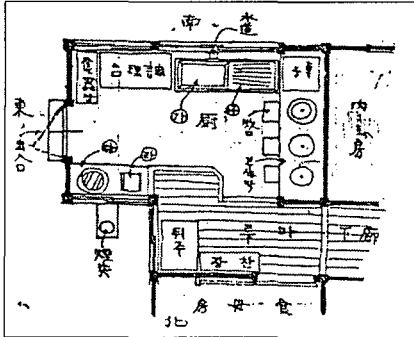


그림 8. 박길룡의 K씨댁 부엌개량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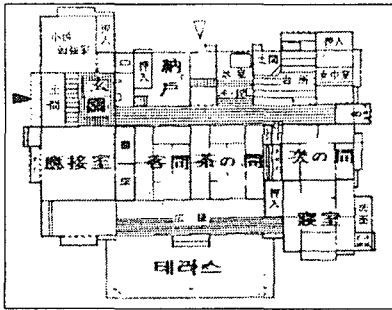


그림 9. 和洋折衷의 속복도형 日式住宅

또한 찬마루 주위의 다양한 수장시설과 日式 格子窓의 채용으로 볼때 즉 20세기초 한국에 들어온 和洋折衷의 속복도형 日式住宅(그림 9)<sup>27)</sup>의 부엌과 그 주변 공간구성 방식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 강점기라는 당시의 특수한 정치·사회적인 배경과 일본에 유학한 건축주 강기훈의 교육배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유경각의 찬마루에는 다양한 기능의 공간이 집약되어 있다. 北壁에 板材로 만든 곡물을 저장하는 고정형의 두지가 있으며, 이밖에도 외벽을 따라 多段의 벽장과 선반을 만들어 두고 각종 생활 용품을 수납할 수 있게 했다.(그림 6) 이러한 찬마루와 함께 부엌 서측면에 벽돌로 만든 立式 개수대와 긴 선반 등도 부엌과 찬마루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작업의 내용과 동선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전의 밀양지방 상류주택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다.

이처럼 부엌과 찬마루를 중심으로 작업공간과 다양한 수장시설을 집약하여 계획한 것은 능률적인 가사작업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이며, 여기에 부엌 상부의 다락이 수직동선으로 연결되면 가사작업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2) 만운재(舊 사랑채)의 평면

만운재는 주택 사랑채로 건축된 것으로, 장대석 네벌대의 높은 기단 위에 건축한 正面 5칸, 側面 1.5칸의 ‘-자형’ 평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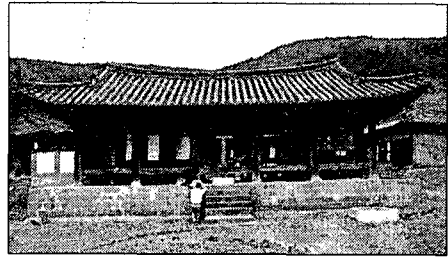


사진 5. 만운재(舊 사랑채)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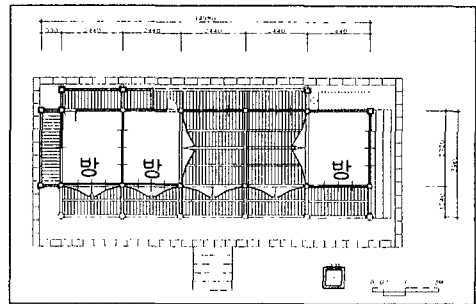


그림 10. 만운재(舊 사랑채) 평면도

가운데 마루를 두고 東西에 각각 1칸 및 2칸 크기의 온돌방을 배설했으며, 그 앞에는 반칸폭의 뒷마루를 놓았다.(사진 5, 그림 10)

온돌방 배면에는 벽장을, 마루 배면에는 쪽마루를 시설했다. 좌측 온돌방 서측에는 반침을 시설하고, 거기에 붙여 부엌을 後設했다. 우측 온돌방 측면에는 日式 장마루를 시설했는데, 마루 양끝에 삼각형의 單一 板材를 線刻한 日式의 까치발로 처짐을 보강하였다. 우측 온돌방은 3면에 창호를 둔 형태로 좌측방에 비해 두어 매우 개방적이다. 이는 응접실로 쓰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배면을 제외한 全間에 창을 시설한 것이 특징이다.

(3)기타 건물

만운재내 기타건물로는 경초각과 영정각 및 고직사가 있다. 景肖齋은 경덕단 건립에 공이 큰 박

27) 안성호, 김순일, “1910년 이전 일식관사의 이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1997.3, 제11호 pp.58~59.

해철의 공덕을 추모하여 1934년에 지은 것이다.

건물은 정면 4칸·측면 1칸이며, 구조는 간략한 3량가이다. 평면은 2칸 마루, 온돌방 1칸, 부엌이 놓였으며, 건물의 보존상태는 좋지 못하다. 影幀閣은 朴海徹의 影幀을 모신 단칸 사당으로 適敬閣 우측에 있다. 낮은 벽돌 기단 위에 다듬은 초석을 놓고 圓柱를 세운 3檁架의 맞배집이다. 기둥 상부의 도리·들보·서까래에만 모로단청을 베풀었다.

庫直舍는 景肖齋와 마주보며 배치된 정면 4칸·측면 1.5칸의 규모의 건물로, 景德壇과 萬雲齋의 관리인이 거주했다. 견치석 기단 위에 角柱를 세운 3량가이며, 평면은 남쪽부터 마루 1칸, 온돌방 2칸, 부엌 1칸을 배열한 형식이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건물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仰景門은 만운재 대문채로, 정면 4칸반, 측면 1칸의 소슬대문으로 어칸 중앙에 고주를 세워 판문을 달았다.(사진 6,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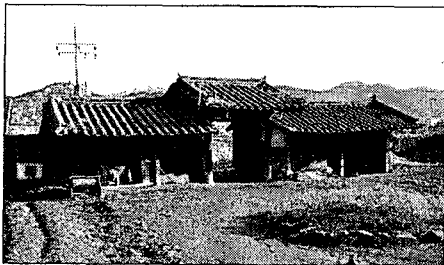


사진 6. 만운재 仰景門

#### 4. 입면 및 구조

##### 4-1 경덕단의 外三門과 祭壇

###### (1) 外三門과 祭壇의 壁面 裝飾

경덕단 외삼문 중 소슬삼문이 있는 중앙부 3칸을 제외한 긴 벽면에 吉祥文字(사진 7)와 卍字무늬를 넣어 화려하고 장엄하게 장식했다. 벽면의 세부를 살펴보면 하부에 장방형의 장대석을 한 줄로 놓고, 중방 하부까지 벽돌을 막힌 줄눈으로 쌓았다. 좌우 각 3칸의 긴 벽돌 벽면으로 인해 수평성이 강조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벽면에 方區를 만들고 그 안에 여러 형태의 벽돌과 화장줄눈으로, 좌우 5개씩 총 10개의 吉祥文字무늬를 새긴 것과 그 위에는 가로로 길게 卍字무늬를 넣어 장식한 수법이다.

그리고 외삼문의 문지방과 하인방 하부에는 백색과 자주색의 타일을 붙여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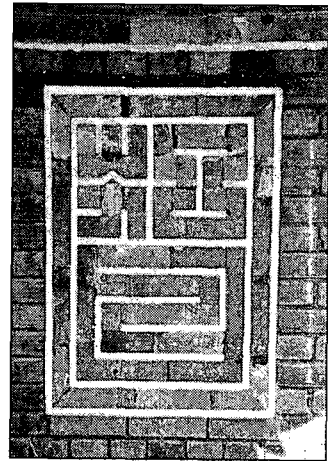


사진 7. 경덕단 외삼문 남측벽의 文字무늬



사진 8. 경덕단 외삼문 내벽의 內觀

외삼문 내부 壁面에도 老松·鶴·해(日)·梅花 등의 벽화를 그려 화려하게 장식했으며(사진 8), 처마의 보머리에는 짐승 얼굴을 그렸다. 기둥·보·도리·서까래 등의 주 구조부재에는 모로단청을 베풀어 장엄하게 장식했다. 중앙부 소슬삼문의 부연 개판에는 연등금 무늬의 금단청을 올렸다.

그리고 경덕단의 祭壇 碑石 後部 'ㄷ자형'의 '가벽' 前面에는 중국산 자주색과 흰색의 장방형 유색 타일(110×60mm)을 斜線 방향으로 붙여 작은 菱形 무늬를 반복적으로 구성하였다. 가벽 상부에는 여러 종류의 陽刻 花紋 타일(150×150mm)을 수평 띠처럼 붙여 화려하게 치장했다. (사진 12)

이처럼 벽돌 벽에 문자무늬와 卍字무늬를 넣거나, 內壁에 벽화 및 다양한 문양의 모로 또는 금단청으로 벽면 및 木部材를 장엄하게 장식한 수법은 지방의 민간 건축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

###### (2) 경덕단 外三門의 창호

경덕단 외삼문 중앙부의 소슬 외삼문은 3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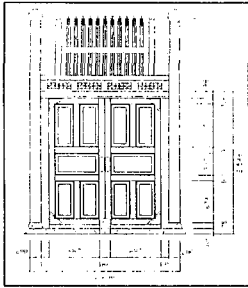


그림 11. 경덕단  
소של삼문 입면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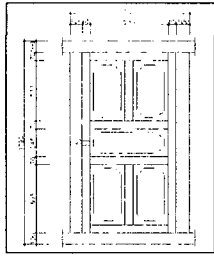


그림 12. 만운재  
양경문의 洋板門

가운데 기둥에 맞추어 매 칸에 두 짝의 洋板門을 시설했다. 출입문은 위계에 따라 神門에 해당하는 어칸의 양판문을 크게(w980×h 2247mm), 좌우 퇴칸의 양판문(w773×h1850mm)을 작게 만들었다. 어칸의 양판문로 문울거미 안에 얇은 판재를 끼워 만들고, 문짝의 네 귀는 삼각형의 鐵製 띠쇠로 보강했다.(그림 11)

이같은 양판문은 전통적인 띠장 판문과는 그 형식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전 시기에는 볼수 없던 것이다. 洋板門 상부에는 (그림 11)과 같이 十字形의 작은 眼象 및 홍살을 꽃아 경덕단의 聖스러운 공간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장식성과 상징성은 외삼문 벽면의 文字무늬와 卍字무늬 및 壁畫 등에서도 볼 수 있었다.

(3) 경덕단 외삼문의 구조

외삼문의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상부가구는 3량가로 되어 있다. 처마는 중앙부 소של삼문만 겹처마로 처리하고, 그밖은 홑처마로 꾸몄다. 기둥은 대부분 세장한 角柱를 사용했다. 지붕이 높은 중앙부 소של삼문의 상부가구는 외진주에 圓形의 高柱를 사용한 3량가 이다. 즉 高柱 위에 大樑을 걸고, 그 위에 제형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는 형식이다. 종도리와 제형 판대공 사이에는 짧은 첨차형 부재를 끼워 넣어 장혀를 지지하게 했다.

高柱 상부에는 柱頭가 놓아 大樑과 도리를 받게 했으며, 주두 밑에는 보아지를 끼웠다. 보아지의 外端은 익공형으로, 仰舌形과 垂舌形 쇠서 사이에 蓮峰을 조각한 형태이다. 大樑 머리에는 鳳頭形의 조각물을 끼워 장식했다.(사진 9) 소של삼문 좌우의 익사는 3량가로 다듬은 사각형 초석 위에 정평 주초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대량과 동자주 대공을 올린 형태이다. 처마는 남도리 밑에 장혀를 둔 장혀수장집에 속한다. 대량과 기둥의 결구

부 밑에는 보아지를 끼워 보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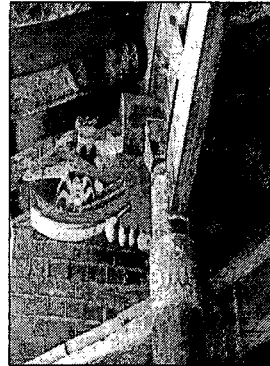


사진 9. 경덕단 소של삼문 익공

4-2 만운재내 건물의 창호

(1) 유경각(舊 안채)의 창호형식과 구성

온돌방과 마루 앞에 머름 없이 창호를 시설하여 머름 높이 만큼 창 높이가 늘어났다. 온돌방의 정면의 띠살창은 만운재 정면의 띠살창과 같은 형식이나 단 상부에 만운재와 달리 고창을 시설하지 않았다.(그림 16 참조) 띠살창 안쪽에는 그림 13과 같은 형식의 미서기 亞字창을 달았다. 미서기 亞字창은 위에서부터 亞字살, 솥대살, 판유리, 궁판이 차례로 조합한 것이다. 즉 亞字와 솥대살의 세 살창과 유리창, 당판문의 요소가 복합한 것으로, 근대한옥의 새로운 창호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온돌방과는 달리 마루 배면에는 하부에 머름을 두고, 그 위에 위와 동일한 형식의 亞字창을 달았다. 마루 前面의 窓戶는 두 짝씩 접어 들어여는 형태였으나 지금은 분실되고 없다. 세부 살짜임은 위로부터 띠살과 八角 불발기, 교살, 궁판을 차례로 복합한 형태이다. 팔각의 불발기는 문 울거미에서 투박하게 돌출되어 있다. 以前의 분합문에서 불발기가 문울거미와 同一面으로 결구되는 것과는 다르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면의 띠살창 형식을 따르면서 사분합 들문의 형식을 받아들인 매우 독특한 창호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루에서 온돌방으로 출입하는 廳房間의 경계부에는 (그림 14)와 같은 전통적인 형식을 따른 팔각의 불발기를 둔 사분합문이 달려있다.

그리고 부엌 배면에는 낮은 수직의 板壁 위에 살창과 유리창을 2중으로 시설한 창호가 있다.(그림 15) 이 창은 당시 日式住宅의 格子窓<sup>28)</sup>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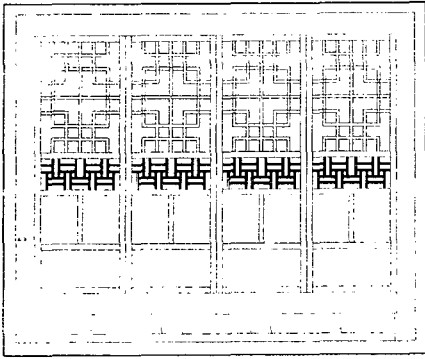


그림 13. 유경각(舊 안채) 마루배면 미서기 창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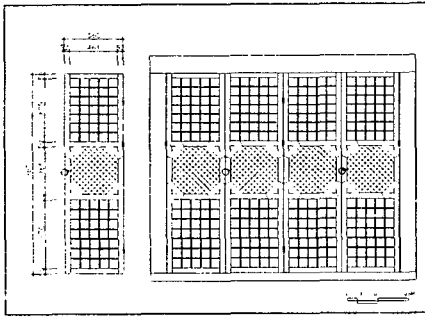


그림 14. 유경각(舊 안채) 廳房間 분합문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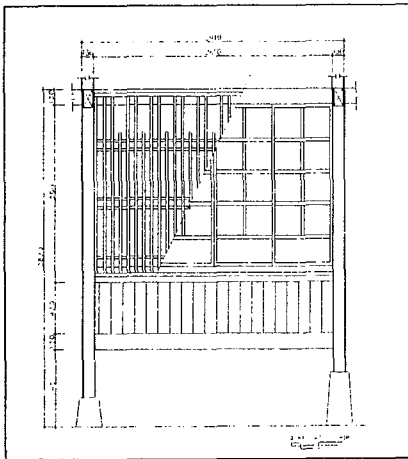


그림 15. 유경각(舊 안채) 背面 日式 格子窓과 유리문

한 형식이다. 한옥에 이러한 日式 格子窓을 그대로 채용한 예는 드문것으로 부엌 背面 찬마루내 공간구성이 日式住宅을 모델로 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창은 柱間에 외부에 좁은 폭의 板材를 촘촘히 꽂아 살창을 구성하고, 그 안쪽에 제법 큰

규모의 격자형 유리창을 네 짝 달았다. 日式의 住文化를 적극 수용한 예라 하겠다.

(2) 만운재(舊 사랑채)의 창호형식과 구성

만운재의 경우 좌측과 우측 온돌방의 정면 창호 형식이 다르다. 좌측 온돌방은 밖에 네 짝의 커 큰 띠살창(w510×h1660mm, 그림 16)을 달고,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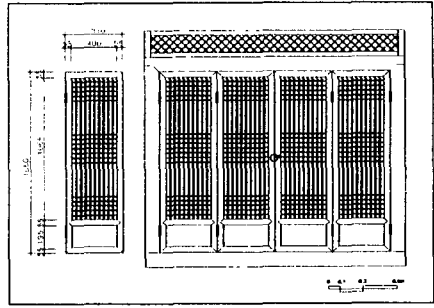


그림 16. 만운재(舊 사랑채) 온돌방 정면 띠살창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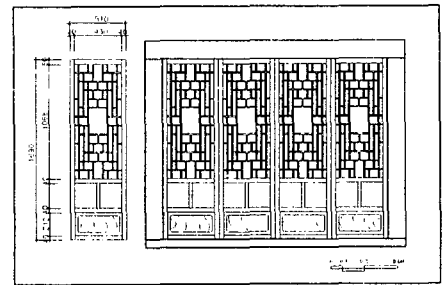


그림 17. 만운재(舊 사랑채) 온돌방 미서기 완자창 입면도

안쪽에 네 짝의 미서기창을 달았으나 우측 온돌방은 정면과 측면에 띠살창 없이 네 짝의 미서기창만 달았다. 좌우 온돌방 공히 유경각과 처럼 창 하부에 머름이 없어 전반적으로 前時期보다 개방적인 창호형태를 보여준다.

띠살창 안에는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亞字살창, 판유리, 궁창널이 차례로 조합된 미서기창(w510×h1690mm)이 달려 있다. 이러한 형식의 창호는 亞字창과 유리문, 당판문의 요소가 새로운 개념에서 복합한 것으로, 以前 시기에서 볼수 없던 것이다. 즉 근대한옥의 특징적인 창호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띠살창 위에는 실내 채광을 위해 한 칸폭의 교살창을 시설했다. 만운재 마루 앞에는 유경각 마루 앞에 달

28) 近藤豊, 「古建築の細部意匠」, 大河出版, 1972. ,p.111.

렸던 것과 동일한 창호가 달려 있었으나 도난당하고 없다. 마루와 온돌방 사이(廳房間)의 사분합 들문은, 유경각의 그것과 동일한 형태이다.

그리고 마루 배면에는 머름 없이 미서기 완자창을 시설했는데, 창은 위에서부터 완자살창, 판유리, 궁창널을 차례로 조합된 형태이다. 이는 마루 배면에 판문을 시설하는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복합형의 새로운 창호를 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만운재내 건물의 구조

(1) 유경각(舊 안채)의 구조

유경각의 상부가구는 5량가로 大樑 위에 板臺工을 놓아 宗樑을 받쳤다. 종량 위에 제형 판대공을 놓아 마루도리와 받침장허를 받도록 했다. 처마도리는 납도리이며, 창방과 장혀사이에는 소로를 끼워 수장했다. 기둥은 앞쪽에만 圓柱를 쓰고 나머지는 모두 角柱를 사용했다. 처마는 홀처마이며, 5량가임에도 短椽없이 長椽만으로 지붕틀을 구성했다. 지붕 네 귀에는 말굽서까래 수법으로 연목을 걸었다.(사진 10) 유경각 지붕구조에서 특징적인 것은 長椽위에 덧 서까래를 걸어 덧지붕을 구성한 것이다. 중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斜材의 덧 서까래를 걸고, 그 위에 중도리를 다시 거는 수법을 사용하여 지붕 물매를 조절했다.(그림 18)

(2) 만운재(舊 사랑채)의 구조

만운재는 홀처마의 장허수장집으로, 상부가구는 3량가이다. 원형 또는 방형의 가공초석 위에 정평주초방식으로 기둥을 세웠다. 기둥과 들보는 상투걸이 수법으로 결구하고, 결구부 아래에 각형 보아지를 끼워 보강했다. 大樑 위에 원형에 가까운 말각방형의 板臺工을 놓아 중도리를 받았다. 처마도리는 납도리이며, 밑에 장혀로 보강했다. 기둥은 전퇴에만 圓柱를 쓰고 나머지는 角柱를 사용했다.(그림 19) 그리고 우측면의 쪽마루는 日式의 장마루(사진 11)를 모방한 것으로 동자주 없이 청판 양끝에 草刻한 삼각형의 판재로 마루를 받쳤다. 전반적인 의장과 건축 구조수법을 볼 때 유경각(舊 안채)보다 위계가 낮게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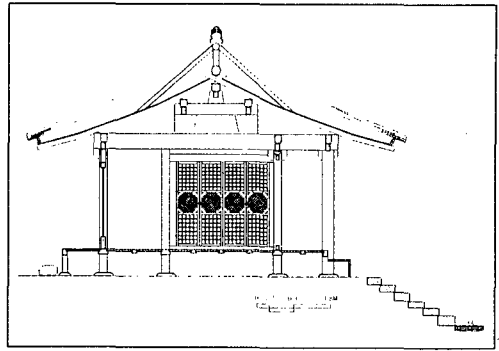


그림 18. 유경각(舊 안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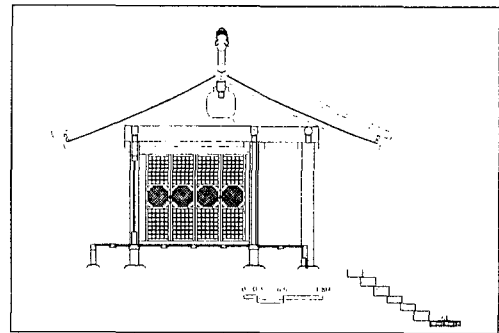


그림 19. 만운재(舊 사랑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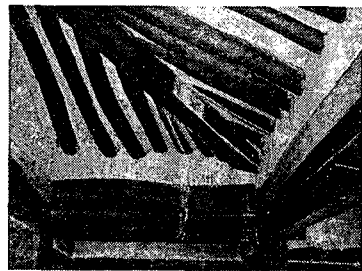


사진 10. 유경각(舊 안채)의 말굽서까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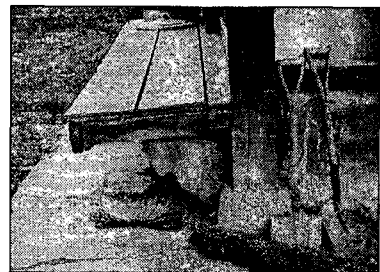


사진 11. 만운재(舊 사랑채) 우측면日式 장마루와 까치발

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재료들이 사용되었다. 새로운 재료로는 벽돌과 有色타일, 黃銅製 창호철물 등 근대적 성격의 재료가 사용되었다. 이중 가장

5. 건축재료 및 설비

5-1 경덕단과 만운재의 건축재료

경덕단과 만운재에는 전시기 전통적인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벽돌이다. 경덕단 외삼문 정면의 넓은 벽면과 부속재실인 만운재의 유경각(舊 안채)과 만운재(舊 사랑채)의 굴뚝, 고맥이, 지붕 박공벽 등에 사용되었다. 또한 유경각 부엌의 입식 개수대 및 아궁이 등도 벽돌로 만든 것이다. 특히 경덕단 외삼문의 긴 남측벽과 祭壇의 가벽을 모두 벽돌로 쌓은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이 시기 밀양의 대다수 근대주거에서는 굴뚝이나 고맥이, 지붕박공, 일부 벽체 등에 부분적으로 벽돌을 사용될 때, 이 집에서는 벽면을 모두 벽돌로 조적하는 등 폭 넓게 사용되었다.

경덕단과 만운재에 쓰인 벽돌의 크기는 222×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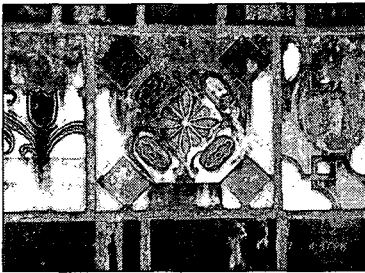


사진 12. 경덕단 祭壇 後部 가벽의 有色 타일

×50mm(L×W×H)으로, 개화기의 벽돌과 동일한 규격이다. 이 벽돌은 開港 이후 영국·불란서·독일의 영향을 받아 8 3/8"×4"×2 3/8"의 벽돌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7.5×3.6×2.0寸의 벽돌로 보인다.<sup>29)</sup>

1920년대에 들어와 경공업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양의 벽돌이 생산되었다. 대부분 일본인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산량은 1917년에 비해 1935년에는 약 10배의 성장을 보였다. 이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이 시기 건축에 벽돌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0)</sup> 표준화된 단위 재료인 벽돌의 적극적인 사용은 만운재와 경덕단의 근대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벽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일이 사용되었다. 경덕단 제단 後部에 위치한 가벽은 벽돌로 축조하고 표면에 중국산 자주색과 흰색의 유색타일(110×60mm)을 붙여 완성했다. 가벽 상부에는 여러 종류의 陽刻 花紋 타일(150×150mm)을 붙여 화려하게

29) 장기인, 「한국건축대개.Ⅱ:벽돌」, 보성문화사, 1983, pp.39~40.  
30) 김석순, "1920-1945년의 건축 주재료인 목재와 벽돌의 생산사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권 20호, pp.16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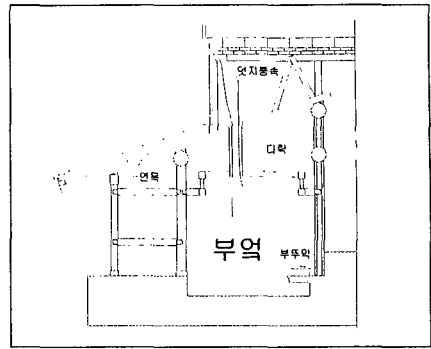


그림 20. 유경각(舊 안채 부엌 상부배연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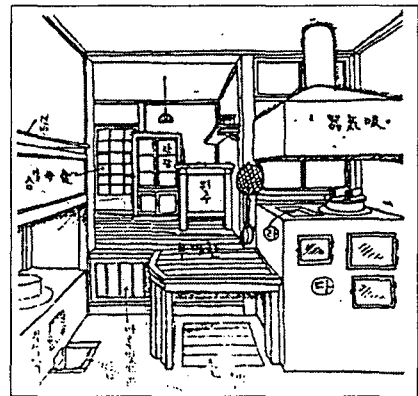


그림 21. 부엌의 배연설비와 찬마루 (자료: 연세대 주생활학과 대학원 동창회, 앞책, p.66.)

치장했다.(사진 12) 이처럼 벽면 전체에 타일을 붙인 것은 당시로서는 드문 것이다. 그리고 경덕단 지붕에는 梨花를 陽刻한 솟막새와 '福'字를 새긴 암막새 기와를 덮어 장식했다.

벽돌과 유색 타일뿐만 아니라 창호에는 전통적인 수공업에 의해 제작되는 돌쩌귀 대신 공장에서 대량 제작한 황동제 정첩과 손잡이가 사용되었다. 이처럼 벽돌과 타일, 황동제 창호 철물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5-2 만운재 유경각(舊 안채)의 排煙設備  
유경각(舊 안채) 부엌 상부의 다락 중앙부에 근대적 排煙設備가 설치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림.20은 유경각 부엌의 排煙 設備를 想定하여 그린 것이다. 먼저 수직 배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다락의 네 귀퉁보다 바닥을 20cm 높게 구성하여 부엌 천정이 위로 만입되었다. 만입된 천정은

후드(Hood)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입된 다락의 바닥 중앙에는 540×540mm의 排煙口가 뚫려 있다. 다락 바닥의 方形의 排煙口 주위에는 수직 배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2cm 가량의 좁은 홈이 있다. 이 홈은 鐵製 또는 板材의 排煙 후드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수직 배연설비와 다락의 연등천정이 접하는 부분의 서까래 사이는 仰土를 제거하고 穿孔했다. 穿孔部 주위에는 排煙口를 설치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처럼 부엌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배연시설을 통해 다락과, 다락 상부 처마속(덧서까래)을 지나 박공부 상단의 들려진 望瓦 밑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다.

이같은 고도의 배연설비가 1920년대 중반에 한옥인 유경각에 채용된 것에서 설비의 과학화와 효율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1)은 1920년 동아·조선의 양대 민족지의 창간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후드를 이용한 부엌의 배연설비를 보여주고 있다.<sup>31)</sup> 유경각 부엌의 배연설비도 이런 맥락에서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굴뚝을 높이 세워 부엌과 온돌방의 연기를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정면과 배면에 각 1, 2기의 굴뚝을 축조했다. 정면의 굴뚝은 기단 끝에 붙여 벽돌로 처마 위로 쌓아 올렸다. 이 굴뚝은 건물의 중앙에 건립되어 입면상 시각적 초점이 된다. 배면의 굴뚝 2기는 각각 큰방 및 우측방 배면에 위치하며, 後苑의 花階에 붙여 前面 굴뚝과 같은 방식으로 쌓았다. 이러한 정교한 배연설비가 지방 농촌 근대한옥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상류층이 설비의 과학화를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 6. 결론

密城朴氏의 始祖인 密城大君의 祭壇으로 건축된 景德壇 및 부속재실 萬雲齋를 대상으로 일제 강점기하 밀양지역 근대한옥의 공간구성과 입면, 구조, 재료, 설비 등에 나타난 근대적 성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연혁을 살펴본 결과 密城大君의 祭壇인 景德壇은 박해철의 주도로 1927년 음력 8월에, 萬雲齋는 당초 富豪 강기훈의 주택으로 1924년에

건축되었다. 특히 만운재 공사에는 한·중·일 三國의 건축기술자가 참여하여, 한국목수는 목조건축 전반을, 일본 목수는 창호 및 쪽마루 공사, 중국인은 유경각 부엌의 排煙設備 및 조적공사를 맡아 일했다.

둘째, 유경각의 부엌과 배면의 공간구성방식은 전통적인 부엌에 서비스 공간인 찬마루를 도입한 형태였다. 찬마루는 20세기초 밀양을 비롯한 남부지방 상류주택 안채에 나타나는 정지방 위치에 1920년대 들어와 주택 및 생활개선 운동을 통해 적극 제안된 찬마루를 채용한 예로 볼 수 있다. 찬마루와 부엌내 벽돌조 立式 개수대 및 다양한 수장시설은 가사 작업내용과 동선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유경각의 근대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또한 찬마루 주위의 다양한 수장시설, 외벽의 日式 格子窓을 볼 때 20세기초 유입된 和洋折衷의 속복도형 日式住宅의 부엌 주변공간의 구성수법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배경과 일본에 유학한 건축주 강기훈의 교육배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세째, 경덕단과 만운재의 큰 건축적 특징은 입면의 장식성 및 창 면적의 확대, 새로운 형식의 창호 사용이다. 경덕단 외삼문 벽돌 벽에 넣은 문자무늬와 卍字무늬 및 內壁의 벽화, 단청으로 벽면 및 木部材를 장엄하게 장식한 수법은 지방의 민간 건축에서 보기 드문 입면구성 수법이다. 창면적의 확대로 온돌방 정면 매칸에 內外 네 짝의 창호가 시설되었으며, 이는 두 짝의 창호가 시설되던 前時期 형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새로운 형식의 창호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1) 경덕단 소슬삼문에 사용된 洋板門은 문울거미 안에 얇은 장방형 궁창널을 여러 개 끼우고, 네귀는 삼각형의 鐵製 띠쇠로 보강한 형태로, 전통적인 띠장 판문과는 형식이 다른 것이다.

2) 유경각(舊 안채)과 만운재(舊 사랑채)의 온돌방 앞에는 머름 없이 키 큰 창을 시설했다. 온돌방 정면의 창호는 2중으로 밖에 네 짝의 여단이 띠살창 안쪽에 네 짝의 미서기 亞字창 또는 완자창을 달았다. 유경각의 미서기 亞字창은 위에서부터 亞字살, 숫대살, 판유리, 궁창널이 차례로 조합된 형태로 근대한옥의 새로운 창호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경각의 마루 배면에는 머름 위에 전통적인 板門 대신 온돌방 前面의 미서기창과 동일한

31) 연세대 주생활학과 대학원 동창회, 「한국 주택자료집」, 1988, pp.33~34, 66.

형태의 亞字창을 달았다.

3) 유경각과 만운재(舊 사랑채)의 마루 前面 窓戶는 띠살, 八角 불발기, 교살, 궁창널을 조합한 형태로, 온돌방 정면의 띠살창 형식에 불발기가 있는 사분합 들문의 형식을 수용한 것이다.

4) 유경각(舊 안채)의 부엌 배면의 格子窓은 당시 日式주택의 格子窓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이는 부엌 배면 찬마루 주위의 수장공간 구성이 日式住宅을 모방한 것과 관련 있는 입면구성으로, 日式의 住文化를 적극 수용한 예라 하겠다.

5) 만운재(舊 사랑채) 좌우측 온돌방에는 다른 형태의 창호가 사용되었다. 왼쪽 온돌방은 유경각과 같은 형식의 띠살창 안에 미서기창을 둔 형태로, 미서기창은 亞字살창에 판유리, 궁창널을 조합한 형태이다. 이는 세살창(亞字)과 유리창, 당판문의 요소가 조합된 것으로, 이전 시기 밀양지역 상류주택에서 는 볼 수 없던 것이다. 온돌방 정면 상부에는 채광을 고려하여 장방형의 교살창을 달았다. 마루 배면에는 판문을 시설하는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완자살, 판유리, 궁창널이 조합된 미서기창을 달았다.

네째, 유경각(舊 안채)에는 부엌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다락과, 처마 속(덧지붕)을 통해 박공부 상단으로 배출하는 고도의 배연설비를 설치하였다.

이는 1920년 이후 주거환경 및 주택 개량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배연설비가 1920년대 중반에 한옥인 유경각에 채용된 것에서 설비의 과학화와 효율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건물 前後面에는 배연과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 個別 房마다 벽돌조 굴뚝을 축조했다.

다섯째, 유경각의 구조는 홑처마 팔작지붕이며, 상부가가가 5량가임에도 長椽만으로 지붕틀을 구성했다. 기둥과 들보는 상투걸이 수법으로 결구하고, 지붕 네귀에는 말굽서까래 수법으로 椽木을 걸었다. 지붕구조에서 특징적인 것은 장연 위에 斜材의 덧서까래를 거는 수법을 사용했다. 만운재는 3량가의 홑처마의 장혀수장집이다. 유경각과 만운재 공히 원형 또는 방형의 가공초석 위에 정평주초방식으로 기둥을 세웠으며, 기둥과 들보는 상투걸이 수법으로 결구했다. 만운재 우측면의 쪽마루는 日式의 장마루를 모방했으며, 전반적인 의장과 건축 구조수법을 볼 때 舊 사랑채인 만운재가 舊 안채인 유경각보다 건축적 위계가 낮게 처

리되었다.

여섯째, 건축재료면에서 경덕단과 만운재에는 개화기의 벽돌과 동일한 222×106×50mm(L×W×H)의 벽돌이 사용되었다. 벽돌은 경덕단 외삼문 외벽 및 굴뚝, 아궁이, 개수대, 고맥이, 지붕 박공 벽 등에 적극 사용되었다. 경덕단의 祭壇 後部 '가벽'에는 벽돌 외에 中國産 有色 타일이 사용되었다. 자주색과 흰색의 有色타일 및 陽刻 花紋 타일은 가벽의 벽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쓰였다.

그리고 창호에는 판유리가 적극 사용됨에 따라 전통적인 세살창이나 板門에 유리창이 부가된 새로운 형태의 창호가 사용되었다. 창호 철물에 있어서도 수공업에 의한 돌쩌귀 대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황동제 정침과 손잡이를 띠살문과 양판문에 많이 사용했다. 이처럼 벽돌과 타일, 판유리, 황동제 창호 철물 등 새로운 재료가 많이 사용되었다.

끝으로 1920년 중후반에 건축된 경덕단과 만운재는 전통적인 건축형식을 유지하면서 근대건축과 함께 유입된 근대적 건축재료와 새로운 창호형식, 배연설비, 덧지붕 방식을 채용 건축했으며, 그리고 가사 작업공간 등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1. 이호열, "경북지방 근대한옥의 유형과 성격", 「건축역사연구」, 13집 한국건축역사학회, 1997. 12.
2. 김봉렬, "조선후기 한옥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2. 1월.
3. 이강민, 「초기근대 전남지역 근대한옥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1. 2월
4. 김석순, "1920-1945년의 건축 주재료인 목재와 벽돌의 생산사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1권 20호, 1991. 4.
5. 연세대 주생활학과 대학원 동창회, 「한국주택자료집」, 1988.
6. 近藤豊, 「古建築の細部意匠」, 大河出版, 1972.
7. 신영훈, 조정현, 「한옥의 建築陶藝와 무늬」, 기문당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Kyungduck-Dan* and *Manun-Jae* in *Miryang*

-Mainly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Houses in modern  
era(1876-1945)-

Lee Ho Yeol

(Associate professor, Mirya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s for the *Kyungduck-Dan*(as a altar of *Milsung-Daegun*) and The *Manun-Jae* the characteristics(lay out and planning, window patterns, structure, materials) of the the Korean traditional house during the modern era. Before *Manun-Jae* was used for the house. The *Kyungduck-Dan* was constructed in August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er in 1927. The *Manun-Jae*(house for *Ki-hun Kang*, millionaire ) was completed in 1924. Modern Architectures brought to Korea with the bricks, the tiles, the flash doors, the plate grasses, the brass hardwares. These architectural material was used in positive.

During the construction of *Manun-Jae* in 1924, it happened the architectural exchange among a korean, a chinese and a japanese constructor. Though using the air exhaust valve at the kitchen of *Ukyung-Kak*( old *Anchae*), it could be assume that the modern convenience and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s was considered at that period during the construction of *Manun-Jae*. That construction was elected with the brick(222mm x 106mm x 50mm), the chinese colored tile and plate glass such a modern materials. The new shape of the korean lattice window and the wooden flash-door with glass was used. In *Ukyung-Kak*, the *Chan-Maru*(service space) and the kitchen such as a service space or concise utility zone was organically connected. Especially, considered the domesitic activity and circulation, the western kitchen sink and the *Chan-Maru*(service space) was rationally placed.

At the *Manun-Jae* and the *Kyungduck-Da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 is that the new shape of windows was used. The lattice window at the *Ondol* room of *Ukyung-Kak*, was rgadually added the plate glass and the wood plate. The lattice window with the grid shape at kitchen of that building was adapted japanese grid lattice window in korea at that period. It is the sample that korean traditional house was typically influenced from the japanese resident culturue. The *Manun-Jae* and the *Kyungduck-Dan* as the modern house kept the form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was partially adapted a modern characteristic space and modern architectural materials. During the japanese occupancy, these residence can be showed the transition in formally.